(재)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 58 (2026. 4.), 225-260
ISSN 1226-5926 (print), ISSN 2586-2480 (online)
DOI: https://doi.org/10.28977/jbtr.2026.4.58.225
https://dbpiaone.com/bskorea/index.do

JBTR
JOURNAL OF BIBLICAL TEXT RESEARCH

#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구약에서 괄호의 필요성과 유용성 검토

김동혁*

## 1. 들어가며

본 연구의 목적은 『개역개정』(1998) 구약에서 사용된 괄호들을 살피고 그 필요성과 유용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개역개정』 구약에는 괄호가 98번 나온다. 이 중 73번은 시편과 하박국에서 '셀라'를 묶은 것인데, 그것들을 제외한 25개의 괄호 본문이 본 논의의 연구 범위이다.[1] 괄호로 묶인 본문은 짧은 경우 한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 긴 경우는 네 절까지 아우른다. 본 연구는 『개역개정』 구약의 괄호 본문 25개를 문맥과 함께 살핌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고 유용성과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개역개정』 신약의 괄호 본문에 관해서는 조재천이 이미 연구한 바 있다.[2] 조재천의 연구는 『개역개정』 신약에서 사용된 괄호 57쌍 중 "(없음)" 같이 사본상 이독을 표시한 것들을 제외한 42쌍의 괄호의 기능을 분류하고 그 필요성과 유용성을 검토하였다. 조재천은 『개역개정』 신약 괄호들의 기

* Yale University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 donghyukk@yonsei.ac.kr.

1) '(셀라)'는 시편에 70회 나오고 하박국 3장에 3회(3, 9, 13절) 더 나온다. 시편 9:16[17]에 '(힉가욘, 셀라)'가 나오는데, 이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논의하겠다. 히브리어 시에서 사용되는 '셀라'를 번역에서 괄호로 묶을지 말지를 평가 혹은 결정하는 일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 이 문제는 번역위원회나 개정위원회가 번역 원칙을 세울 때에 언어적, 주석적 숙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것이다.

2) 조재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신약에서 괄호의 필요성과 유용성 검토 — 역주, 방백, 근거 제시의 기능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57 (2025), 111-141.

능을 역주, 방백, 근거, 부대 상황, 세부 사항의 5종류로 구분하고, 이 중 역주, 방백, 근거 범주에 속하는 본문을 상세히 논의하였다(부대 상황과 세부 사항 범주에 속하는 본문은 후속 연구로 다룰 것을 약속하였다).[3] 조재천의 연구는 필자의 본 연구에 기초를 제공한다. 필자는 조재천의 논의의 구조를 따라 아래에서 『개역개정』 구약의 괄호 본문들의 기능을 분류하고 그 유용성과 필요성을 살필 것이다. 조재천의 범주들을 활용하여 본 연구는 구약 괄호 본문들의 기능을 ① 부연, ② 부대 상황, ③ 이유 또는 근거, ④ 기타의 넷으로 구분할 것이다. 조재천은 또한 『개역개정』 신약의 괄호들이 어디에서 왔을지에 관해서도 논의해 준다.[4] 그는, 원본에는 없었을 괄호들이 『개역개정』에 오게 된 것은 (『개역개정』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개역』(1938)의 번역자들이 당대의 그리스어 저본(Vorlage)인 NTG[12](1923)와 KJV(1611), English Revised Version(이하 ERV, 1881)을 참고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한다.[5] 그러나 『개역』의 신약이 NTG[12], KJV, ERV의 괄호 혹은 (괄호 역할을 하는) 줄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번역자들은 독자적 검토를 거쳐 괄호를 이어받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새로 넣기도 했다.[6]

## 2. 『개역개정』 구약의 괄호 본문들: 예비적 고찰

『개역개정』 구약의 개별 괄호 본문을 살피기 전에 이 단락에서는 몇 가지 예비적인 논의를 하고자 한다.

### 2.1. 개역자회가 사용한 저본과 역본

『개역개정』 구약의 괄호 본문 25개는 『개역』과 『개역한글』(1961)에서도 모두 괄호로 묶여 있다. 즉, 『개역개정』 구약의 괄호는 모두 『개역』에서 이어받은 것이다. 이 때문에 『구역』(1911)을 개정한 개역자회가 참고한 저본과 역본이 무엇이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1912년 1월 25일 밀러(H. Miller) 총무가 『구역』의 개역자회에 보낸 <번역지침서(*Rules for the Guidance of*

3) Ibid., 특히 117-118.
4) Ibid., 115-117.
5) Ibid., 116; NTG[12]: E. Nestle, *Novum Testamentum Graece cum apparatu critico ex editionibus et libris manu scriptis collecto. Editio duodecima recognita* (Stuttgart: Privilegierte Württembergische Bibelanstalt, 1923).
6) 조재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신약에서 괄호의 필요성과 유용성 검토", 116-117.

*Translators, Revisers & Editors, working in connection with the BFBS*)>에 따르면 개역자회는 구약의 저본으로 영국과외국성서공회(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가 마련한 최신판 히브리어 성경 본문을 사용해야 했고 영어 역본으로는 KJV와 ERV를 활용할 수 있었다.[7] 개역자회가 사용한 히브리어 저본은 긴즈버그(C. D. Ginsburg)의 히브리어 구약성경이었다.[8] 히브리어 성경에는 괄호가 사용되지 않으므로『개역』계열 역본들의 괄호가 어디서 왔는지를 따지려면 KJV와 ERV 본문을 보아야 한다. 아래 개별 본문에 관한 논의에서는『개역개정』구약의 괄호 본문들이 다른 다양한 역본들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살필 터인데, KJV와 ERV도 함께 볼 것이다.[9]

## 2.2. 역본들의 괄호 사용 양상

본 연구는『개역개정』을 포함한 15개 역본의 괄호 사용 양상을 헤아릴 것이다. 역본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괄호 속 연도는 구약전서의 출간 연도이다).

<표 1> 연구 대상 역본들의 목록

| 분류 | 역본 |
|---|---|
| 『개역개정』이 참고한 우리말 역본 | ①『구역』(1911)<br>②『개역』(1938)<br>③『개역한글』(1961) |
| 『개역개정』 | ④『개역개정』(1998) |
| 『개역한글』 이후의 우리말 역본 | ⑤『공동』(1977)<br>⑥『공동개정』(1999)<br>⑦『표준』(1993)<br>⑧『새번역』(2001)<br>⑨『새한글』(2024) |

7)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대한성서공회사 II: 번역·반포와 권서사업』(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122.

8) Ibid., 146; 긴즈버그(C. D. Ginsburg)의 구약 본문은 C. D. Ginsburg, עשרים וארבעה ספרי הקדש (*The Twenty-four Holy Books*), 2 vols. (London: Trinitarian Bible Society, 1894)이다.

9) 역본들의 괄호 사용 양상은 <부록 1>에서 한눈에 볼 수 있다.

| 분류 | 역본 |
|---|---|
| 개역자회가 참고한<br>영어 역본 | ⑩ KJV(1611)<br>⑪ ERV(1885) |
| 현대 영어 역본 | ⑫ NIV(2011)<br>⑬ NRS Updated Edition(이하 NRSUE, 2021)<br>⑭ ESV(2025) |
| 현대 독어 역본 | ⑮ LB(2017) |

15개 역본의 괄호 사용 양상을 보여 주는 표를 <부록 1>에 실었다. 이 단락에서는 눈에 띄는 사실 몇 가지를 짚고자 한다. 첫째, 『개역개정』의 괄호 본문 25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괄호나 줄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역본들이 있다. 우리말 역본인 『공동』, 『공동개정』, 『새한글』이 그러하다. 둘째, 독어 역본인 LB는 괄호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괄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줄표만 사용했다. 셋째, 25개 본문을 기준으로, 괄호를 가장 많이 사용한 역본은 (『개역개정』을 논외로 하면) 『개역』과 『개역한글』이다. 두 역본은 『개역개정』이 괄호를 사용한 모든 본문에서 괄호를 사용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했듯 『개역개정』의 괄호는 모두 『개역』 및 『개역한글』에서 왔다고 이해할 수 있다.[10] 마지막으로, 괄호나 줄표를 적게 사용한 역본들로는 『구역』(7곳), KJV(8곳), LB(9곳)가 있다. 나머지 역본들은 13곳(『표준』, 『새번역』), 14곳(NRSUE), 15곳(NIV), 17곳(ERV, ESV)에서 괄호나 줄표를 썼다.[11]

## 2.3. 괄호 본문의 기능

아래의 논의에서 필자는 『개역개정』 구약의 괄호 본문의 기능을 다섯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① 짧은 부연, ② 긴 부연, ③ 부대 상황, ④ 이유 또는 근거, ⑤ 기타가 그것이다. 이것은 조재천의 범주들과는 조금 다른데, 기준이 달라져서 그리되었다기보다는 우연의 일치일 것이다. 즉, 신약에서 사용된 기능이 우연히 구약에서 사용 안 됐을 수도 있고, 구약에서 사용된 기능이 우연히

10) 그러나 『개역개정』이 『개역』과 『개역한글』의 괄호를 모두 이어받지는 않았다. 『개역』과 『개역한글』에 있던 괄호가 『개역개정』에서 지워진 사례가 8개 있다(창 1:15, 24; 10:12; 수 3:15; 삿 20:27-28; 전 8:16; 사 47:4; 겔 43:13).

11) 주의할 것은 헤아린 숫자들이 각 역본의 구약 전체에서 헤아린 괄호의 수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가 다룰 (『개역개정』의 괄호 본문인) 25개만 살폈을 때 그러하다는 것이다. 각 역본 전체에서 괄호가 얼마큼 쓰였는가를 살피는 일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

신약에서 사용 안 됐을 수도 있다. 괄호 본문의 수 자체가 그리 많지 않으므로 구약과 신약 각각에서 괄호의 기능이 망라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괄호 본문의 기능을 분류하는 기준은 형태가 될 것이다. 편리하게도 히브리어 담화는 문장의 구조와 어순이 그 기능과 역할을 표지해 주는 경우가 많다. 위의 기능들 또한 히브리어 구문의 형태를 통해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하다. 형태에 근거해서 기능을 분류할 때 그 결과가 좀 더 일관되고 객관적일 수 있다. 내용에 근거한 분류는 해석이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짧은 부연이든 긴 부연이든 부연의 표지는 선행사(antecedent)와 전방조응어(anaphora)가 될 것이다.[12] 히브리어 담화에서 특정 어구를 부연하는 다른 어구(혹은 문장)가 뒤따르는 경우 전자는 선행사가 되고 후자는 전방조응어로 시작된다. 그리고 이 전방조응어는 부연 속에서 화제(topic)가 되고 이 화제를 평언(comment)이 설명해 준다.[13] 가령 창세기 23:19를 보라.[14]

>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 וְאַחֲרֵי־כֵן קָבַר אַבְרָהָם אֶת־שָׂרָה אִשְׁתּוֹ אֶל־מְעָרַת שְׂדֵה הַמַּכְפֵּלָה עַל־פְּנֵי מַמְרֵא הִוא חֶבְרוֹן בְּאֶרֶץ כְּנָעַן

위 본문에서 원문의 **מַמְרֵא**(『개역개정』의 첫 번째 '마므레')는 선행사이고, **הִוא**(『개역개정』의 '마므레는')는 전방조응어이자 화제이고, '헤브론이라'는 평언이다.

아래 논의에서 부연은 '짧은 부연'과 '긴 부연'으로 구분된다. 짧은 부연과 긴 부연의 구분 또한 어느 정도 형태에 기반한다. 우리가 다룰 사례들에서 짧은 부연은 주석(gloss)을 제공하는 수준에서만 설명을 덧붙인다. 즉, 짧은 부연은 단어나 구(phrase) 수준의 부연이다. 반면 긴 부연은 절(clause) 수준 이상의 설명을 더해 준다. 때로는 선행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둘째, 부대 상황은 '바익톨'(*wayyiqtol*)이 연속되는 중간에 '바브-X-카탈'(*waw*-X-*qatal*)이 삽입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히브리어 내러티브에서 전경(前景, foreground)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진행(내러티브의 줄기)은 '바익톨'

12) '선행사'와 '전방조응(어)'에 관한 간략한 설명으로 김정우 편, 『성경원어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문법용어 사전』 (서울: 기혼, 2025), s.v. "선행사(先行詞) antecedent"와 "전방조응어(前方調應語) anaphor, anaphora"를 참고하라.

13) '화제'와 '평언'에 관한 간략한 설명으로 ibid., s.v. "화제(話題) topic"과 "평언(評語) comment"를 참고하라.

14) 이하 성경 본문의 한국어 번역은 다른 말이 없는 경우 『개역개정』을 인용한 것이다.

의 연속으로 표현된다. 반면 배경(背景, background)에서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즉, 부대 상황)은 그 사이에 끼워진 '바브-X-카탈'로 표현된다.[15] 아래에서 다룰 부대 상황의 괄호 본문은 모두 '바브-X-카탈'로 시작한다.

셋째, 이유 혹은 근거를 제시해 주는 괄호 본문은 모두 접속사 כִּי로 시작한다.[16]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형태적 특징을 찾기 어려운 사례들이 있다. 이들은 기타로 분류하여 다루겠다.

다음 단락에서 다룰 구약의 괄호 본문들을 위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하면 <표 2>와 같다.

<표 2>『개역개정』 구약의 괄호 본문 목록

| 범주 | 괄호 본문 |
|---|---|
| 짧은 부연(3곳) | 창 23:19; 48:7; 겔 41:16 |
| 긴 부연(9곳) | 창 10:14; 신 2:10-12; 2:20-23; 3:9, 11, 13-14; 수 12:7-8; 삼상 9:9; 겔 20:29 |
| 부대 상황(4곳) | 신 10:6-9; 삼상 30:5; 대하 9:10-11; 느 3:26 |
| 이유 또는 근거(6곳) | 신 29:16-17; 대상 5:1-2; 에 1:13-14; 욥 8:9; 27:3; 겔 45:14 |
| 기타(3곳) | 민 5:21; 삼상 6:19; 시 9:16 |

## 2.4. 괄호의 필요성 및 유용성의 평가 기준

아래에서 보겠지만 많은 경우 괄호는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된다. 문제는 히브리어 원문에서 괄호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번역에서 괄호를 넣을 때에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조재천이 지적했듯 괄호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경우는 안 쓰는 것이 옳다.[17] 즉, 괄호 본문이 괄호 밖 본문의 흐름을 심하게 끊을 때, 혹은 괄호

15) '바브-X-카탈'의 기능에 대한 친절한 설명으로 홍국평, "창세기 27장의 장면전환 기법 분석을 통한 '베-X-카탈' 구문의 기능에 관한 연구", 「신학논단」 75 (2014), 379-407을 참고하라.

16) 접속사 כִּי의 의미와 기능에 관한 논의로, A. Aejmelaeus, "Function and Interpretation of כי in Biblical Hebrew", *JBL* 105 (1986), 193-209를 참고하라.

17) 조재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신약에서 괄호의 필요성과 유용성 검토", 114.

가 없다면 읽기가 현저히 어려울 때에만, 괄호를 써야 한다.

## 3.『개역개정』 구약의 괄호 본문들: 논의와 평가

### 3.1. 짧은 부연

괄호 본문의 기능 중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것은 어떤 단어에 대해 부가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다. 괄호 본문으로 번역된 부연 설명은 짧은 경우도 있고 긴 경우도 있다. 이 단락에서는 짧은 부연 3개(창 23:19; 48:7; 겔 41:16)를 성경 순서를 따라 다루겠다.

#### 3.1.1. 창세기 23:19

>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18]

**역본들의 괄호 사용**: 괄호나 줄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하는 12개 역본 중 6개 역본에서 괄호를 썼다(『개역』, 『개역한글』, 『개역개정』, ERV, NIV, ESV).

**논의**: 괄호 본문은 '마므레'를 부연해 준다. '마므레'의 또 다른 이름이 '헤브론'이라는 것이다. 원문을 보면 첫 번째 '마므레'가 선행사이고 '마므레는'은 전방조응어임을 알 수 있다. 괄호 본문은 '마므레'에 대한 일종의 주석(gloss)인데, 후대의 편저자 및 청중에게 유의미한 정보인 듯하다.[19] 다만 부연 설명에 시제를 알려 주는 동사가 없기에(הִוא חֶבְרוֹן) 주석이 후대와 관련되는지("마므레는 [지금의] 헤브론이다"), 아니면 내러티브 속 시간과 관련되는지("마므레는 [당시] 헤브론이라고도 불렸다") 확실하게 알기는 어렵다.

**평가와 제안**: 부연을 괄호 속에 집어넣는 것은 대개 도움이 된다. 창세기 23:19의 사례도 그러하다. 그러나 도움이 된다고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 경

---

18) 이하 §3에서는 개별 논의를 시작할 때마다 『개역개정』 본문을 인용하겠다. 본문을 인용할 때 필요한 경우 괄호 본문 밖의 내용도 보여 줄 것이다. 부연에 관한 단락(§3.1-2)의 개별 논의에서 괄호 본문 앞에 그어진 밑줄은 괄호 본문이 부연하는 선행사를 가리킨다.

19) 성경의 전승을 우리에게 전해 준 저자와 편집자를 아울러 '편저자'로 부르는 것에 관해서는 S. Talmon, "The Textual Study of the Bible: A New Outlook", *Text and Canon of the Hebrew Bible: Collected Studies* (Winona Lake: Eisenbrauns, 2010), 26-29를 참고하라. Talmon의 이 에세이는 F. M. Cross and S. Talmon, eds., *Qumran and the History of the Bible Tex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5), 321-400을 재출간한 것이다.

우에는 괄호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 무엇보다 부연 자체가 워낙 짧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절에서 괄호를 지우고 다음과 같이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 **제안 (1)**: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곧 헤브론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 **제안 (2)**: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제안 (1)은 괄호 본문을 '마므레' 바로 뒤에 둔 것이다. "곧 헤브론"은 여전히 부연 설명의 역할을 한다. 부연이 짧아서 괄호가 없어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제안 (2)는 『개역개정』의 문장 구조를 그대로 두되 괄호만 없앤 것이다. '마므레'와 부연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거리가 멀지 않아서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 3.1.2. 창세기 48:7

>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역본들의 괄호 사용**: 괄호나 줄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하는 12개 역본 중 6개 역본에서 괄호를 썼다(『개역』, 『개역한글』, 『개역개정』, ERV, NIV, ESV).

**논의**: 이 본문의 사례는 창세기 23:19의 사례와 비슷하다. 실제로 역본들의 괄호 사용 여부도 꼭 같다. 괄호 본문은 '에브랏'이란 지명의 다른 이름이 '베들레헴'임을 부연해 준다. 창세기 23:19에서처럼 이 괄호 본문도 시제를 알 수는 없지만, 역시 후대의 편저자 및 청중에게 유의미한 정보인 듯하다.

**평가와 제안**: 창세기 23:19에 내린 평가를 여기서도 그대로 반복할 수 있다. 즉, 괄호는 도움이 되지만 꼭 필요하지는 않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괄호를 지울 것을 제안한다.

> **제안**: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위 제안은 『개역개정』의 문장 구조를 그대로 두되 괄호만 없앤 것이다. 창세기 23:19와 달리 '곧 베들레헴'을 '에브랏' 바로 뒤에 두기는 어렵다. '에브랏 길'이라는 표현을 중간에 끊기 때문이다.

### 3.1.3. 에스겔 41:16

>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려 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 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역본들의 괄호 사용**: 괄호나 줄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하는 12개 역본 중 6개 역본에서 괄호나 줄표를 썼다. 『개역』, 『개역한글』, 『개역개정』, NRSUE, ESV의 5개 역본은 괄호를 썼고, LB는 줄표를 썼다.

**논의**: 성전 곳곳을 상세히 묘사해 주는 에스겔 41장에서 16절의 괄호 본문은 바로 앞에 나오는 (두 번째) '창'의 상태를 부연해 준다. 원문과 함께 보게 되면 밑줄을 그은 '창'이 선행사이고 괄호 본문 속 '창'이 전방조응어임을 알 수 있다.

**평가와 제안**: 괄호를 사용한 역본들을 읽어 보면 괄호가 읽기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6절에서 17절로 넘어갈 때 괄호 본문을 건너뛰면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렇더라도 부득이한 경우에만 괄호를 써야 한다는 원칙을 따르기로 한다면 괄호를 삭제하는 것이 온당하다. 실제로 괄호를 쓰지 않은 『새한글』을 읽더라도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괄호 본문 자체가 매우 짧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역개정』을 개정한다면 괄호를 삭제하는 것이 낫다.

## 3.2. 긴 부연

지금까지 살핀 짧은 부연들은 선행사를 한 단어로 설명하거나 보충해 주었다. 긴 부연은 부가적인 정보를 한 문장 이상으로 제공한다. 따라서 긴 부연은 대개 주해(comment)가 된다. 긴 부연은 선행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와 관계가 적은 다른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 단락에서는 긴 부연 9개(창 10:14; 신 2:10-12, 20-23; 3:9, 11, 13-14; 수 12:7-8; 삼상 9:9; 겔 20:29)를 성경의 순서를 따라 논의하겠다.

### 3.2.1. 창세기 10:14

>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역본들의 괄호 사용**: 괄호나 줄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하는 12개 역본 중 7개

역본에서 괄호를 썼다(『개역』, 『개역한글』, 『개역개정』, KJV, ERV, NIV, ESV).

**논의**: 창세기 10:13-14는 노아의 손자이자 함의 아들인 미스라임(6절)의 아들들 일곱의 이름을 나열해 준다. 이때 괄호 본문은 여섯 번째 이름인 '가슬루힘'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즉, 가슬루힘의 후손 중에 블레셋이 있었음을 일러 준다.

**평가와 제안**: 창세기 10:14의 괄호 본문과 관련하여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괄호가 읽기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괄호 본문은 서술의 줄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후대의 주해이다.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온 것(괄호 본문)은 미스라임이 가슬루힘을 낳은 것(서술의 줄기)보다 후대의 일이다. 즉, 괄호 본문은 후대의 편저자와 그의 청중이 관심을 가질 만한(또는 그들에게 의미 있을 만한) 내용일 뿐이다. 괄호가 있기 때문에 독자는 족보에 집중할 수 있다. 둘째, 괄호 본문은 미스라임의 아들들을 나열하는 목록(13-14절)의 중간에 삽입되어 있다(원문에서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라는 문장은 '가슬루힘'과 '갑도림' 사이에 끼워져 있다). 길게 이어지는 목록에서 특정 항목에 부연이 덧붙은 경우, 그 부연 설명을 괄호 속에 넣어 주면 읽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위의 두 가지 고려 사항에도 불구하고 괄호를 쓰지 않고 번역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 문장의 뜻을 특정하기가 어려워진다. 괄호를 없앤 다음 문장을 보라.

> **괄호를 없앤 번역**: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블레셋의 조상이 될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이 문장이 문법적으로 틀린 번역은 아니다. 그러나 오해의 가능성이 크다. 가슬루힘이 "블레셋의" 조상인지 "바드루심과 블레셋의" 조상인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 블레셋의" 조상인지 애매하다.[20]

따라서 필자는 여기서 『개역개정』의 괄호를 유지할 것을 제안한다. 괄호의 사용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른다 하더라도 괄호를 유지할 때 얻는 유익과 괄호를 없앨 때 생기는 불이익이 모두 분명하다. 다만 괄호의 위치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 괄호 본문은 '가슬루힘'에 대한 부연이므로 (어차피 괄호를 쓰기로 한다면) '가슬루힘' 바로 뒤로 옮기는 것이 보다 원문에 가까워진다.

---

20) 이런 오해를 피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스라임의 아들들의 이름을 나열할 때 쉼표를 쓰면 된다(예: "미스라임은 루딤, 아나밈, 르하빔, 납두힘, 바드루심, 블레셋의 조상이 될 가슬루힘, 갑도림을 낳았더라"). 그러나 14절을 이런 식으로 수정하면 10장의 다른 모든 부분도 수정해야 한다. 『개역개정』에서 10장의 이름들은 모두 '와/과'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제안**: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 3.2.2. 신명기 2:10-12

9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10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11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12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역본들의 괄호 사용**: 괄호나 줄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하는 12개 역본 중 KJV를 제외한 모든 역본이 10-12절을 따로 구별했다. LB는 줄표를 썼고 나머지 10개 역본은 괄호를 사용했다.

**논의**: 신명기 2:10-12는 9절에 나오는 '그 땅'(= 모압 사람들의 땅)을 부연해 준다.[21] 짧은 부연들과는 달리 10-12절의 부연은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준다. 10-11절은 모압 사람들의 땅에 본래 살던 주민들에 관해 말해 주고, 12절은 세일 땅에 본래 살던 사람들에 관해 말해 준다. 주목할 점은 괄호 밖 내용과 괄호 속 내용의 화자가 다르다는 점이다. 즉, 2장 대부분에서 화자는 모세인데, 10-12절은 후대 편저자의 해설이다.[22] 이 부분이 후대의 말이라는 점은 내용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12하반절("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נָתַן] 기업의 땅에서 행한[עָשָׂה] 것과 같았느니라")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사건이 과거의 것으로 기술돼 있다(이 사건은 모세 시대에는 아직 안 일어났다).

---

21) 즉, 10절의 '거기'와 9절의 '그 땅'은 지시 대상이 같다. 10절의 '거기'가 아르뿐만 아니라 모압 사람들의 땅 전체를 가리킨다는 이해는 J. H. Tigay, *Deuteronomy: The Traditional Hebrew Text with the New JPS Translation*,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6), 27을 따른 것이다.

22) 신명기 전체는 주로 모세의 일인칭 담화이므로 화자는 대개 모세가 된다. 그러나 후대의 편저자가 종종 자신의 말을 끼워 넣은 경우가 있다. 티게이(J. H. Tigay)에 따르면 신명기 2-3장에 그런 경우가 다섯 번 나온다(J. H. Tigay, *Deuteronomy*, 26). 2:10-12, 20-23; 3:9, 11, 13인데, 다섯 본문 모두 『개역개정』에서 괄호로 구별하였다. 필자는 Tigay의 이해를 대부분 따르지만 3:11의 경우 첫 절(clause)은 후대 편저자의 논평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신명기 3:11에 관한 아래의 논의를 보라.

**평가와 제안**: 괄호 본문은 확실히 모세의 연설의 흐름을 방해한다. 화자도 다르고(모세/편저자), 시기도 다를 뿐 아니라(모세 당대/가나안 정착 이후), 청자도 다르기 때문이다(이스라엘 백성/이야기의 청중 및 독자). 실제로 10-12절을 괄호로 묶는 것은 읽기에 큰 도움이 된다. 12개 역본 중 11개 역본에서 괄호나 줄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개역개정』신명기 2:10-12의 괄호 또한 다른 대부분의 역본처럼 유지하는 것이 낫다.

### 3.2.3. 신명기 2:20-23

> 19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20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음이요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숨밈이라 일컬었으며 21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22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23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역본들의 괄호 사용**: 괄호나 줄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하는 12개 역본이 모두 20-23절을 따로 구별했다. LB는 줄표를 썼고 나머지 11개 역본은 괄호를 사용했다. 이 같은 '만장일치'는 이곳과 신명기 3:9뿐이다.

**논의**: 신명기 2:20-23의 사례는 바로 앞에서 다룬 10-12절과 닮았다. 20-23절은 10-12절처럼 후대 편저자의 해설이다. 몇 가지 부수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암몬 족속의 땅'(19절)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해서 다른 정보까지도 준다. 즉, 20-22절은 암몬 족속의 땅에 대한 전사(前史)를, 23절은 블레셋 땅의 전사를 일러 준다. 여기서도 괄호 밖 화자는 모세이고 괄호 본문의 화자는 후대의 편저자이다. 괄호 본문이 후대의 것이라는 사실은 '전에'(לְפָנִים, 20절), '오늘까지'(עַד הַיּוֹם הַזֶּה, 22절) 같은 표현으로 알 수 있다.

**평가와 제안**: 10-12절의 괄호에 내린 평가를 여기서도 반복할 수 있다. 괄호 본문은 모세의 연설을 방해할 뿐 아니라 화자와 시기와 청자가 다르다. 무엇보다 괄호나 줄표를 한 번이라도 쓰는 역본은 모두 20-23절을 따로 묶었다. 따라서 20-23절의 괄호는 성경 읽기에 큰 도움이 되므로,『개역개정』

의 괄호는 유지하는 것이 낫다.

### 3.2.4. 신명기 3:9

> 8 그 때에 우리가 요단 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9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룐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역본들의 괄호 사용**: 괄호나 줄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하는 12개 역본이 모두 9절을 따로 구별했다. LB는 줄표를 썼고 나머지 11개 역본은 괄호를 사용했다. 신명기 2:20-23과 더불어 둘뿐인 '만장일치'이다.

**논의**: 신명기 3:9는 신명기 2-3장에 삽입된 후대 편저자의 해설 중 세 번째 것이다. 9절의 해설은 8절의 '헤르몬'을 부연해 준다. 다른 언어 사용자들이 '헤르몬'을 부른 이름들을 알려 준다.[23]

**평가와 제안**: 앞의 두 본문에 대해 내린 평가를 여기서도 그대로 쓸 수 있다. 괄호는 모세의 연설과 후대 편저자의 해설을 구별해 주므로 읽기에 큰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괄호나 줄표를 한 번이라도 쓰는 역본은 예외 없이 3:9를 따로 묶었다. 따라서 『개역개정』의 괄호는 유지하는 것이 낫다.

### 3.2.5. 신명기 3:11

> 10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11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아홉 규빗이요 너비가 네 규빗이니라)

**역본들의 괄호 사용**: 괄호나 줄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하는 12개 역본 중 10개 역본에서 괄호를 썼다(『구역』, 『개역』, 『개역한글』, 『개역개정』, 『표준』, 『새번역』, ERV, NIV, NRSUE, ESV).

**논의**: 이 본문과 관련하여 괄호의 범위에 대해 논의를 좀 해야 한다. 필자

---

23) 우리말로 된 모든 역본이 9절의 서술어를 과거로 번역했지만(예: '불렀느니라'), 원문에서 이 서술어는 미완료형(יִקְרְאוּ)이므로 현재로 번역할 수도 있다. 실제로 우리가 다루는 모든 영어와 독어 역본이 그렇게 번역했다. 이 경우 9절이 후대 편저자의 해설이라는 점은 더욱 명확해진다.

가 보기에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옥뿐이었으며"는 괄호 밖으로 빼야 할 것 같다. 물론, 괄호를 사용하는 10개 역본에서 모두 괄호의 위치가 같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11절 전체가 후대 편저자의 논평은 아닌 것 같다. 11절의 첫 절(clause)은 접속사 כִּי로 시작되어 10절의 진술에 대한 이유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이해를 따른다면 10-11절은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다.

> **수정한 번역**: 10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11 이는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가 바산 왕 옥뿐이었음이라(כִּי רַק־עוֹג מֶלֶךְ הַבָּשָׁן נִשְׁאַר מִיֶּתֶר הָרְפָאִים) (보라[הִנֵּה]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아홉 규빗이요 너비가 네 규빗이니라)

『개역개정』을 포함해 괄호를 사용하는 역본의 다수가 히브리어 כִּי를 번역하지 않았다(ERV와 ESV만 כִּי를 접속사 'for'로 번역했다). 그래서 이들 역본이 11절의 첫 절(clause)도 후대 편저자의 논평에 속한다고 이해한 듯하다. 그러나 11절의 첫 절을 10절에 대한 이유로 이해하게 되면, 후대 편저자의 논평의 범위를 줄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24] 즉, 원문의 הִנֵּה('보라')부터 편저자의 논평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보라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 너비가 네 규빗이니라"는 '옥'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긴 부연이 된다. '보라' 이하가 부연을 구성한다는 이해는 앞에서 언급한 형태적 기준에도 부합한다. 즉, 11절의 첫 부분에 나오는 '바산 왕 옥'이 선행사이고 הִנֵּה 다음에 나오는 '그의 침상'(עַרְשׂוֹ)의 '그'가 전방조응어이고 '그의 침상'이 화제이다. 따라서 만약 괄호를 쓰기로 한다면, 괄호를 11절 첫 부분이 아니라 (위 수정한 번역의) '보라' 앞으로 옮겨야 한다. 11절의 첫 절(clause)을 모세의 담화로 보고 11절의 나머지 부분을 후대 편저자의 논평으로 볼 경우, 이 논평은 바산의 왕 옥의 전설적인 침상에 관한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

**평가와 제안**: 11절의 괄호 본문은 모세의 담화와는 화자, 시대, 청자가 다르다. 따라서 괄호를 유지하는 것이 읽기에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번역을 조금 수정하고 괄호의 위치를 조정한다는 전제하에, 기존의 괄호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

---

24) 11절의 첫 절(clause)이 어떻게 10절 내용의 이유가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추측건대 10절에서 "우리가 빼앗은 것"을 언급할 때 왕이 한 명만 나오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함인 듯하다. 즉, 남은 왕이 없었기에("르바임 족속의 남은자가 바산 왕 옥뿐이었음이라"[수정한 번역]) 정복한 것이 옥과 옥의 나라밖에 없었다고 모세가 설명하는 듯하다.

> **제안**: 10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11 이는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가 바산 왕 옥뿐이었음이라 (보라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아홉 규빗이요 너비가 네 규빗이니라)

### 3.2.6. 신명기 3:13-14

> 13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14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역본들의 괄호 사용**: 괄호나 줄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하는 12개 역본 중 10개 역본에서 괄호를 썼다(『구역』, 『개역』, 『개역한글』, 『개역개정』, 『표준』, 『새번역』, ERV, NIV, NRSUE, ESV). 주목할 점은 괄호를 사용한 역본들에서 괄호의 위치가 같지 않다는 것이다. '아르곱 온 지방'(כֹּל חֶבֶל הָאַרְגֹּב)을 괄호 속에 넣은 역본도 있고(『표준』, 『새번역』, NIV, NRSUE) 밖으로 뺀 역본도 있다(『구역』, 『개역』, 『개역한글』, 『개역개정』, ERV, ESV). 즉, 전자는 '아르곱 온 지방'을 13절의 두 번째 문장으로 번역했고, 후자는 13절의 첫 번째 문장으로 번역했다.[25] 마소라 본문의 악센트를 따른다면 '아르곱 온 지방'이 13절의 하반부에 속한다고 이해해야 한다. 아트나하가 '아르곱 온 지방' 바로 앞에 있는 '므낫세'(הַמְנַשֶּׁה)에 찍혀 있기 때문이다.

**논의**: 신명기 3:13하반-14는 신명기 2-3장에 삽입된 후대 편저자의 해설 중 다섯 번째 것이다.[26] 13하반-14절의 논평은 13상반절의 '온 바산'을 부연해 준다. 그 내용은 바산의 다른 이름이 '르바임의 땅'이라는 것(13하반절), 그리고 야일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을 점령하여 새 이름을 붙여 주었고 그 이름이 편저자의 시대에 통용되고 있다는 것이다(14절).

**평가와 제안**: 13상반-14절의 괄호 본문과 괄호 밖 모세의 담화는 화자, 시대, 청자가 다르다. 따라서 괄호를 유지하면 읽기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러므

---

25) 괄호를 사용하지 않는 역본들의 경우 『공동』과 『공동개정』과 LB는 '아르곱 온 지방'에 해당하는 어구를 첫 문장으로 번역했고, 『새한글』은 '아르곱 온 지방'에 해당하는 어구를 두 번째 문장으로 번역했다. KJV는 13절을 한 문장으로 번역했는데, '아르곱 온 지방'을 문장의 뒷부분에 포함했다(즉, 『새한글』과 같다).

26) 위 각주 22를 보라.

로 다수의 역본을 따라 『개역개정』의 괄호를 유지할 것을 제안한다. 다만 괄호의 범위는 조정해야 한다.

> **제안**: 13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14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

마소라 악센트를 따라 괄호 밖에 있던 '아르곱 온 지방'을 괄호 속으로 넣었다. 또한 원문의 두 번째 כָּל־הַבָּשָׁן이 『개역개정』에서 '바산'으로만 번역돼 있는 것을 '온 바산'으로 수정하였다.

### 3.2.7. 여호수아 12:7-8

> 7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 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8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9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벧엘 곁의 아이 왕이요 …

**역본들의 괄호 사용**: 괄호나 줄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하는 12개 역본 중 5개 역본에서 괄호를 썼다(『개역』, 『개역한글』, 『개역개정』, NRSUE, ESV).

**논의**: 여호수아 12:7-24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쳐서 멸망시킨 왕들을 나열해 준다. 7상반절이 목록의 서문이고("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9-24절은 왕들 31명의 목록이다. 이때 괄호 본문은 7상반절의 '그 땅'을 길게 부연해 준다(즉, '그 땅'은 이어질 부연 설명의 선행사이다).[27] 부연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그 땅을 후에 어떻게 했는지(7하반절), 또 그 땅의 성격이 어떠했으며 이전 주민들이 누구였는지(8절)에 관한 것이다.

**평가와 제안**: 여호수아 12:7-8의 괄호 본문은 목록의 서문(7상반절)과 목록(9절 이하) 사이에 끼어들어 읽기를 방해할 수 있다. 더구나 삽입된 내용이 비교적 길므로 괄호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필요하다. 따라

27) 혹은 '그 땅'을 꾸며 주는 말 전체를 포함하는 명사구("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 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가 선행사라고 보아도 된다.

서『개역개정』처럼 괄호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 3.2.8. 사무엘상 9:9

> 9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 11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길으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역본들의 괄호 사용**: 괄호나 줄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하는 12개 역본 중『구역』을 제외한 역본이 9절을 따로 구별했다. LB는 줄표를 썼고 나머지 10개 역본은 괄호를 사용했다.

**논의**: 사무엘상 9장은 사울이 어떻게 사무엘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지를 전해 주는 내러티브이다. 5-10절에는 사울과 그의 사환 사이의 대화가 기록돼 있는데, 이때 9절은 두 사람의 대화를 끊는다. 즉, 9절은 내러티브의 진행이나 사울과 사환 간 대화와 무관하다. 9절의 기능은 '선견자'(רֹאֶה)라는 용어를 부연해 주는 것인데, 이 정보는 후대의 편저자와 그의 청중에게만 의미가 있다. 주목할 점은 '선견자'라는 말이 괄호 본문 앞이 아니라 뒤에 나온다는 점이다(11절). 그래서인지 LB의 경우 9절을 줄표로 묶은 후 11절 뒤로 옮겼다.

**평가와 제안**: 9절은 내러티브의 흐름을 방해한다. 또한 9절의 정보는 내러티브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지도 않다. 따라서 괄호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개역개정』및 다른 대부분의 역본처럼 괄호를 유지할 것을 제안한다.

### 3.2.9. 에스겔 20:29

>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역본들의 괄호 사용**: 괄호나 줄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하는 12개 역본 중 8개 역본에서 괄호를 썼다(『개역』,『개역한글』,『개역개정』,『표준』,『새번역』, NIV, NRSUE, ESV). 이 중 NRSUE와 ESV는 29하반절만이 아니라 29절 전체를 괄호로 묶었다.

**논의**: 에스겔 20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규탄하시고 그에 따르

는 심판을 선언하신다. 따라서 20장의 대부분에서 화자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에스겔 20:29하반은 화자도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죄–심판' 메시지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29하반절은 29상반절에 언급된 '산당'(בָּמָה)에 대한 편저자의 부연이다.[28]

**평가와 제안**:『개역개정』의 괄호 본문(29하반절)은 29상반절에서 30절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끊으므로 괄호가 읽기에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개역개정』의 괄호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

### 3.3. 부대 상황

부대 상황은 내러티브의 줄기가 일어나는(혹은 일어난) 무대와는 다른 곳에서 동시에 일어나는(혹은 일어난) 사건을 보여 준다. 앞에서 말했듯 우리가 다룰 모든 예는 '바브-X-카탈'이 그 표지가 된다. 이 단락에서는 부대 상황을 보여 주는『개역개정』의 괄호 본문 4곳(신 10:6-9; 삼상 30:5; 대하 9:10-11; 느 3:26)을 성경의 순서를 따라 논의하겠다.

#### 3.3.1. 신명기 10:6-9

> 1-5 [모세가 여호와께 두 번째 돌판을 받고 그것을 궤에 넣은 이야기를 함]
> 6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야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7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욧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8 그 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 궤를 메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9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역본들의 괄호 사용**: 괄호나 줄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하는 12개 역본 중 10개 역본에서 괄호를 썼다(『구역』,『개역』,『개역한글』,『개역개정』,『표

28) 29상반절과 29하반절 사이의 언어유희에 관해서는 예컨대 M. Greenberg, *Ezekiel 1-20: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22 (Garden City: Doubleday, 1983), 370을 참고하라.

준』, 『새번역』, ERV, NIV, NRSUE, ESV).

**논의**: 신명기 10:1-12에서 모세는 십계명을 두 번째로 받은 이야기(출 34:1-10)를 회고한다. 그런데 6-9절의 괄호 본문은 모세의 말을 중간에 끊는다. 산 위에서 두 번째 돌판을 받은 이야기는 5절에서 10절로 건너뛰고, 6-9절은 모세가 돌판을 받은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1-5절과 10-12절에서는 모세가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데 반해, 6-9절에서는 후대의 편저자가 이야기의 청자/독자에게 말한다. 이때 괄호 본문은 부대 상황을 서술해 준다. 실제로 히브리어 동사들을 보면 '바익톨' 형태가 5절까지 이어지다가 6절 첫머리에서 '바브-X-카탈' 형태가 나타난다(וּבְנֵי יִשְׂרָאֵל נָסְעוּ). '바브-X-카탈'로 장면이 전환되고 6-9절은 중심적 서사가 일어난 배경과는 다른 배경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길게 서술해 준다. 그 내용은 아론의 죽음과 장례, 엘르아살의 제사장직 계승, 그 이후의 여정, 레위 지파의 구별과 역할 규정에 관한 것이다.

**평가와 제안**: 괄호 덕분에 내러티브가 5절에서 10절로 건너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괄호 안과 밖이 화자와 청자와 시대가 다르다. 따라서 『개역개정』의 괄호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

### 3.3.2. 사무엘상 30:5

> (다윗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역본들의 괄호 사용**: 괄호나 줄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하는 12개 역본 중 『개역』, 『개역한글』, 『개역개정』의 3개 역본에서만 괄호를 썼다. 이것은 사무엘상 6:19(아래 §3.5.2를 보라)와 함께 가장 적은 숫자이다.

**논의**: 사무엘상 30장은 시글락에 머물던 다윗의 가족과 그의 군대의 가족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약탈당한 이야기를 전해 준다. 29장에서 다윗과 그의 무리는 블레셋 사람들과 전장에 나갔는데, 그 틈을 타 아말렉 사람들이 네겝과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모든 여자와 아이를 사로잡아 갔다(30:1-3). 다윗과 그의 병사들은 소리 높여 울었고(4절), 급기야 병사들은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6절). 이때 괄호 본문은 내러티브의 흐름을 끊으면서, 다윗의 두 아내인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음을 말해 준다. 이 괄호 본문의 기능은 부대 상황을 서술해 주는 것이다. 원문의 동사들을 보면 '바익톨'이 4절까지 이어지다가 5절에서 '바브-X-카탈'이 사용되고(וּשְׁתֵּי נְשֵׁי־דָוִד נִשְׁבּוּ) 다시 6절에서 '바익톨'이 이어진다. 즉, 1-4절과 6절

이하는 내러티브의 줄기를 말해 주고 5절은 동시간 — 2절의 사건이 일어난 시간 — 에 일어난 다른 사건을 서술해 준다.

**평가와 제안**: 5절은 내러티브의 진행을 방해하므로 괄호를 쓰는 것은 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더라도 괄호를 소극적으로 써야 한다는 원칙을 따르고자 한다면 5절을 꼭 괄호로 묶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괄호나 줄표를 사용하는 12개 역본 중 괄호를 가장 많이 쓰는『개역』계열의 역본들만 5절을 괄호로 묶었다. 괄호를 안 쓰더라도 4절의 사건이 5절이 아니라 6절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다. 앞에서 괄호를 유지할 것은 제안한 신명기 10:6-9와는 달리 삽입된 내용(즉, 삼상 30:5)이 짧기 때문이다. 따라서『개역』계열 역본들의 괄호는 지울 것을 제안한다.

### 3.3.3. 역대하 9:10-11

> 10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11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역본들의 괄호 사용**: 괄호나 줄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하는 12개 역본 중 6개 역본에서 괄호를 썼다(『개역』,『개역한글』,『개역개정』,『표준』,『새번역』, NIV).

**논의**: 역대하 9:1-12는 스바 여왕의 솔로몬 방문에 관해 이야기해 준다. 내러티브의 줄기는 여왕의 방문 중에 일어난 사건과 두 사람 사이의 대화이다. 이때 10-11절은 내러티브의 흐름을 끊는다. 그 내용은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이 오빌에서 금과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왔고 솔로몬이 백단목으로 층대와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9절에서 끊어졌던 스바 여왕의 방문에 관한 이야기는 12절에서 마무리된다.

전체 맥락을 고려할 때 10-11절은 부대 상황을 보여 준다. 10-11절은 스바 여왕과 솔로몬 왕 사이의 사건이 진행되는 무대(1-9, 12절)와는 다른 무대에서 일어난 일을 전해 준다. 물론 두 사건이 물리적으로 동일한 시간에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문학 기법적으로 9:1-12의 본문은 한 무대에서 일어난 사건과 다른 무대에서 일어난 사건을 같이 보여 준다. 동사들의 형태도 10-11절이 부대 상황임을 뒷받침해 준다. 9절까지는 '바익톨'이 이어지다가 10절에서 '바브-X-카탈'이 사용된다(וְגַם־עַבְדֵי חוּרָם וְעַבְדֵי שְׁלֹמֹה ⋯ הֵבִיאוּ). 장면 전환의 표지이다.[29]

---

29) 10-11절이 9절과 12절 사이에 삽입된 이유는 9절 내용 때문인 것 같다. 9절과 10절 모두 솔

**평가와 제안**: 『개역개정』에 있는 것 같은 괄호는 읽기에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역대하 9:9가 12절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괄호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기억한다면 10절 앞에 굳이 괄호를 넣을 필요는 없다. 괄호 없이 본문을 읽더라도 12절이 9절과 연결된다는 것을 놓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앞에서 괄호를 유지할 것은 제안한 신명기 10:6-9와는 달리 역대하 9장의 경우는 삽입된 본문이 비교적 짧기 때문이다. 또한 히브리어 גַּם을 번역한 우리말 보조사 '도'("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도 10-11절이 스바 여왕의 이야기에 비견할 만한 또 다른 이야기임을 일러 준다. 따라서 『개역개정』 역대하 9:10-11의 괄호는 지우는 것이 낫다. 사무엘상 30:5처럼 역대하 9:10-11도 괄호를 유지해야 할 만큼 삽화(揷話)가 길지 않다.

### 3.3.4. 느헤미야 3:26

> (그 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역본들의 괄호 사용**: 괄호나 줄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하는 12개 역본 중 4개 역본에서 괄호를 썼다(『개역』, 『개역한글』, 『개역개정』, ERV).

**논의**: 느헤미야 3:26을 괄호로 묶는 것이 필요한가 불필요한가의 논의를 하기 전에 26절의 히브리어 문장 구조에 관해 이야기해야 한다. 26절의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26절을 삽입 어구로 볼 수도 있고 내러티브의 줄기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괄호를 사용한 역본들(『개역』, 『개역한글』, 『개역개정』, ERV)은 대개 26절을 주어와 서술어를 모두 가진 온전한 문장으로 이해한다. 위에 인용한 『개역개정』의 번역이 그러한 예이다. 반면, 괄호를 쓰지 않은 역본들의 다수(『표준』, 『새번역』, NIV, NRSUE, ESV)는 26절에 '중수하였고'(הֶחֱזִ֖יקוּ)라는 서술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이해한다. 이 역본들은 26절 문장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 **서술어가 생략되었다고 보는 이해**: 그 때에 오벨에 거주하는 느디님 사람은 동쪽 수문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중수하였고]

즉, 『개역개정』 등의 역본은 '거주하여'를 주어인 '느디님 사람은'의 서술어로 보는 것이고, 『표준』 등의 역본은 '거주하는'을 '느디님 사람'을 꾸며 주는

---

로몬이 받은 진귀한 물건에 관해서 이야기해 준다.

관계절로 보면서 문장의 서술어('중수하였고')가 생략됐다고 보는 것이다.[30)]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개역개정』등의 이해가 더 옳은 듯하다.

וְהַנְּתִינִים הָיוּ יֹשְׁבִים בָּעֹפֶל (느 3:26상반)

원문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 느디님 사람들은 오벨에 거주하고 있었다"가 된다. 만약 이 문장을『표준』처럼 번역하려면 히브리어의 자음과 모음을 수정해야 한다. 즉, הָיוּ יֹשְׁבִים(계사 + 분사)을 הַיֹּשְׁבִים(정관사 + 분사)으로 고쳐야 한다.

마소라 본문을 따른다면 26절은 맥락을 벗어난 삽입 본문이다. 그 기능은 부대 상황을 전해 주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는 앞의 경우들(신 10:6-9; 삼상 30:5; 대하 9:10-11)과는 달리 동사의 형태가 부대 상황의 표지가 되지는 않는다. 앞 문맥에서 '바익톨'의 연속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히브리어 문장들의 형태를 보면 26절에서 무언가 전환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26절 전까지 대부분의 문장은 ○○○ (וְ)אַחֲרָיו הֶחֱזִיק ("그 다음은 ○○○가 중수하였고" [○○○는 인명])의 구조를 띤다. 즉, [부사어] + [서술어] + [주어]의 구조다. 그러나 26절에서는 (וְ)אַחֲרָיו הֶחֱזִיק 없이 וְהַנְּתִינִים הָיוּ יֹשְׁבִים בָּעֹפֶל이라고 말한다. 후자의 구조는 [바브] + [주어] + [서술어] + [보어] + [장소 부사어]이다.[31)]

**평가와 제안**: 마소라 본문을 따른다면 26절은 맥락을 벗어난 본문이다. 3장 전체에서 "그 다음은 ○○○가 중수하였고"가 반복되다가 26절에서 성전 허드렛일꾼들(느디님 사람들)이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일러 주는데, 급작스럽다. 따라서 괄호는 읽기에 도움이 많이 된다. 내러티브의 줄기와 관련성이 적은 정보가 제공되므로 비록 본문이 짧더라도 괄호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된다.

## 3.4. 이유 또는 근거

서술자나 내러티브 속 발화자가 서사를 펼쳐 나가다가 잠시 멈추어 사건이나 상황의 이유나 근거를 설명할 때가 있다. 서사의 줄기는 전경이 되고 그것의 이유나 근거는 배경이 되므로, 후자를 괄호 속에 넣어 주면 서사의 줄기를 따라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때로 이유나 근거를 생략할

30) 『공동』,『공동개정』, LB 등은 26상반절의 위치를 옮김으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했다.『새한글』은 26절을 두 문장으로 나눔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31) 이 문장의 구조도 '바브-X-카탈'이다.

경우 서사를 온전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괄호를 지울지 말지는 개별 본문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개역개정』 구약의 괄호 본문 중 이유나 근거를 설명해 주는 본문은 6개가 있다(신 29:16-17[15-16]; 대상 5:1-2; 에 1:13-14; 욥 8:9; 27:3; 겔 45:14). 모두 접속사 כִּי로 시작된다.

### 3.4.1. 신명기 29:16-17[15-16]

> 16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17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역본들의 괄호 사용**: 괄호나 줄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하는 12개 역본 중 7개 역본에서 괄호를 썼다(『개역』,『개역한글』,『개역개정』,『표준』,『새번역』, KJV, ERV).

**논의**:『개역개정』에서는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 16[15]절의 첫 단어인 접속사 כִּי는 16-17[15-16]절이 이유 혹은 근거를 설명하는 절(clause)임을 일러준다. 신명기 29장의 앞부분에서 모세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명령하는데, 16-17[15-16]절은 이스라엘이 순종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평가와 제안**:『개역개정』만 보아서는 16-17[15-16]절이 이유를 설명하는 절(clause)임을 알기 어렵다. 따라서『개역개정』의 번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한다(수정한 부분에 밑줄을 그었다).

> **수정한 번역**: 16 <u>이는</u>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17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u>보았음이라</u>

괄호는 서사의 줄기를 따라가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더라도 위와 같이 괄호 본문이 이유 부사절이라는 점이 잘 드러나도록 번역하면, 괄호는 삭제하는 것이 낫다. 이 본문의 경우 이유/근거를 앎으로써 서사를 보다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6-17[15-16]절은 모세의 권고를 보다 강력하게 만들어 준다.

### 3.4.2. 역대상 5:1-2

>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2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역본들의 괄호 사용**: 괄호나 줄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하는 12개 역본 중 『구역』을 제외한 모든 역본이 1하반-2절을 따로 묶었다. LB는 줄표를 썼고 나머지 10개 역본은 괄호를 사용했다.

**논의**: 역대상의 첫 아홉 장을 이루는 족보와 목록 중에서 5:1-10은 르우벤의 족보를 담고 있다. 괄호 밖에 있는 1절의 첫 부분을 직역하면 "그리고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들"(וּבְנֵי רְאוּבֵן בְּכוֹר־יִשְׂרָאֵל)인데, 기대대로라면 이 명사구 바로 다음에 르우벤의 아들들의 명단이 나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아들들의 이름은 3하반절에서나 시작된다. 1상반-2절은 괄호 본문이고, 3상반절은 1상반절을 반복한다("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 잘 알려져 있듯 이렇게 같은 어구 혹은 내용이 반복되는 '비더아우프나머'(Wiederaufnahme)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괄호에 해당한다.[32] 따라서 괄호 표기의 필요 여부를 떠나 『개역개정』을 비롯한 절대다수의 역본에서 괄호를 표기한 것은 그 근거가 타당하다.

역대상 5:1-2의 괄호 본문의 기능은 히브리어의 형태를 보면 알 수 있다. 5:1하반은 접속사 כִּי로 시작한다. 따라서 5:1하반-2의 기능은 이유 또는 근거를 설명하는 것이다. 다만 이 본문은 문장 구조와 내용이 꽤 복잡하고, 『개역개정』의 번역도 수정이 좀 필요하다.[33]

> **수정한 번역**: 1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u>이는 그가 장자임이라</u>(כִּי הוּא הַבְּכוֹר). 르우벤은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고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2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

32) Wiederaufnahme, 즉 '반복을 통한 재개'(resumptive repetition 또는 epanalepsis)에 관한 간략한 설명은 Z. Farber, "The Resumptive Repetition (Wiederaufnahme)", *The Torah*, accessed 26 January 2026 from https://www.thetorah.com/article/the-resumptive-repetition-wiederaufnahme에서 볼 수 있다. 파버(Z. Farber)가 논의하는 가장 고전적인 예는 창세기 37장과 39장 사이에 삽입된 유다와 다말 이야기(38장)이다. 이 이야기를 감싸는 37장의 마지막 절과 39장의 첫 절은 그 내용이 거의 같다. Wiederaufnahme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B. O. Long, "Framing Repetitions in Biblical Historiography", *JBL* 106 (1987), 385-399를 참고하라.

33) 담화의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해 앞선 경우들과는 달리 문장 부호를 사용하기로 한다.

기존 번역과 비교하면 수정된 번역은 괄호 본문의 첫 문장이 이유 혹은 근거를 나타내는 문장임을 명확하게 보여 준다. כִּי로 시작하는 절(clause)이 어떻게 1절 첫 문장의 이유가 되는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추측건대 역대상 2장에서 시작되는 이스라엘(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타나는 순서와 관련되는 듯하다. 이스라엘의 족보는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로 시작한다(2:3). 유다가 이스라엘의 장자가 아닌데도 그러하다. 그런데 5:1에서는 다시 이스라엘의 장자가 르우벤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는 그가 장자임이라"는 — 비록 동어 반복이긴 하지만 — 이스라엘의 장자가 르우벤이라고 말한(1상반절) 이유를 설명해 주는 듯하다. 즉, '내가 르우벤을 이스라엘의 장자라고 부른 이유는, 르우벤이 이스라엘의 장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 실로 이런 동어 반복이 필요할 만큼 상황이 복잡하다. 첫째, 르우벤은 잘못을 저질러서 장자의 명분을 잃었고(1절), 둘째, 그래서 장자의 명분은 요셉의 자손에게 넘겨졌고(1절), 셋째, 그렇더라도 유다가 다른 형제들보다 우월하여(2절) 족보 자체는 유다에서 시작했다(2:3).[34]

**평가와 제안**: 괄호나 줄표를 쓰는 12개 역본 중 11개가 5:1하반-2를 괄호나 줄표로 묶었다. 어찌 보면 이는 현대의 역본들이 고대 히브리어 문학의 괄호(Wiederaufnahme)를 재현한 것이다. 실제로 5:1상반 다음에 기대하는 내용(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바로 시작되지 않기에 괄호는 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괄호 본문이 많이 길지는 않아서 괄호를 지우더라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긴 하다(예컨대『새한글』을 보라). 결론적으로, 역대하 5:1-2의 괄호는 지워도 좋고 유지해도 좋다.

### 3.4.3. 에스더 1:13-14

> 13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14 그 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일곱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므무간이라)

**역본들의 괄호 사용**: 괄호나 줄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하는 12개 역본 중 8개 역본에서 13하반-14절을 따로 구별했다(『개역』, 『개역한글』, 『개역개정』, KJV, ERV, NRSUE, ESV, LB). LB는 줄표를 썼고 나머지 7개 역본은 괄호를 사용했다.

**논의**: 원문을 보면 괄호 본문의 첫 부분에 접속사 כִּי가 나온다. 따라서 괄

34) 예컨대, R. W. Klein, *1 Chronicles: A Commentary*,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2006), 160을 보라.

호 본문은 이유 혹은 근거를 설명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13하반-14절은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질문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

**평가와 제안**: 『개역개정』만 보아서는 13하반절이 이유를 설명하는 절(clause)임을 알기 어렵다. 따라서 『개역개정』의 번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한다.

> **수정한 번역**: 13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더라 이는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음이라 14 그 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일곱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므무간이라

위와 같이 13하반절이 이유 부사절이라는 점이 잘 드러나도록 번역하면 괄호는 지우는 것이 낫다. 물론 서사의 줄기는 13상반절에서 15절로 건너뛰기에 괄호는 읽기에 도움이 된다. 그렇더라도 13하반-14절이 많이 길지 않기에 독자가 서사의 줄기를 되잡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또한, 신명기 29:16-17에 관한 논의에서 말했듯, 독자는 이유나 근거를 들음으로써 오히려 내러티브의 내용을 보다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3.4.4. 욥기 8:9

>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역본들의 괄호 사용**: 괄호나 줄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하는 12개 역본 중 5개 역본에서 괄호를 썼다(『개역』, 『개역한글』, 『개역개정』, KJV, ERV).

**논의**: 욥기 8:9 또한 원문에서 접속사 כִּי로 시작한다. 따라서 9절은 이유 혹은 근거를 설명하는 기능을 가진다. 8절에서 빌닷은 욥에게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 것을 청한다. 괄호로 묶인 9절은 빌닷이 그렇게 말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 이어지는 10절에서 빌닷은 (8절에서 언급한) "옛 시대 사람"과 "조상들"이 욥에게 교훈을 줄 것이라고 말한다.

**평가와 제안**: 우선, 『개역개정』 욥기 8:9의 첫 문장을 수정하여 이 문장이 이유를 설명해 준다는 점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 **수정한 번역**: 이는 우리가 어제부터 있었을 뿐임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위와 같이 번역한다면 괄호는 삭제하는 것이 낫다. 물론 서사의 줄기가 8절에서 10절로 건너뛰긴 하지만, 이유 부사절이 짧은 편이므로 독자가 길을 잃을 염려는 없다. 게다가 독자는 9절을 들음으로써 빌닷의 논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9절을 괄호로 묶는 것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

### 3.4.5. 욥기 27:3

>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역본들의 괄호 사용**: 괄호나 줄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하는 12개 역본 중 5개 역본에서 3절을 따로 구별했다(『개역』, 『개역한글』, 『개역개정』, ERV, LB). LB는 줄표를 썼고 나머지 4개 역본은 괄호를 사용했다.

**논의**: 욥기 27:3의 첫 단어는 접속사 כִּי이다. 따라서 3절은 앞선 내용의 이유 혹은 근거를 설명하는 기능을 가진다. 2절에서 욥은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개역개정』)라고 말한다. 맹세의 실제 내용은 4절부터 나오므로 3절은 맹세의 서문(2절)과 맹세의 내용(4절 이하) 사이에 삽입된 내용이다.

**평가와 제안**: 우선, 『개역개정』 욥기 27:3을 조금 고쳐서 이 절이 앞 절의 근거를 제공해 준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 **수정한 번역**: 이는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음이라

위와 같이 번역한다면 괄호는 삭제하는 것이 낫다. 맹세 서문이 2절에 있고 맹세의 내용이 4절에서 시작되긴 하지만, 3절이 이유나 근거를 말해 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내용 이해가 그리 어렵지 않다. 오히려 3절은 맹세의 서문(2절)의 근거를 제공해 준다. 즉,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수 있는지(2절),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할 수 있는지(2절) 설명해 준다. 『개역개정』의 괄호는 지우는 것이 낫다.

### 3.4.6. 에스겔 45:14

>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르에서 십분의 일 밧을 드릴지니 기름의 밧으로 말하면 한 고르는 십 밧 곧 한 호멜이며 (십 밧은 한 호멜이라)

**역본들의 괄호 사용**: 괄호나 줄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하는 12개 역본 중 6개 역본에서 괄호를 썼다(『개역』, 『개역한글』, 『개역개정』, NIV, NRSUE, ESV).

**논의**: 에스겔 45:14의 첫 단어는 접속사 כִּי이다. 따라서 14절의 마지막 문장은 앞선 내용의 이유 혹은 근거를 설명해 준다. 동어 반복이 어색하긴 하지만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히브리어 문장을 그대로 이해한다면, "십 밧이 곧 한 호멜"(괄호 밖의 내용)인 이유는 "십 밧은 한 호멜"(괄호 본문)이기 때문이다.

**평가와 제안**: 에스겔 45:14의 마지막 문장의 번역을 조금 고쳐서 이 문장이 이유를 설명해 준다는 점이 잘 드러나도록 하면 괄호는 삭제하는 것이 낫다.

> **수정한 번역**: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르에서 십분의 일 밧을 드릴지니 기름의 밧으로 말하면 한 고르는 십 밧 곧 한 호멜이라 이는 십 밧은 한 호멜임이라

동어 반복이 어색한 것은 원문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번역자가 수정하려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괄호를 유지하는 것이 원 본문의 의도를 훼손하는 것일 수 있다.

### 3.5. 기타

앞에서 다룬 부연, 부대 상황, 이유나 근거로 분류하기 힘든 괄호 본문이 3곳 있다(민 5:21; 삼상 6:19; 시 9:16). 아래에서 차례대로 살피겠다.

#### 3.5.1. 민수기 5:21

>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네 넓적다리가 마르고 네 배가 부어서 네가 네 백성 중에 저줏거리, 맹셋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역본들의 괄호 사용**: 괄호나 줄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하는 12개 역본 중 9개 역본에서 21절을 따로 구별했다(『개역』, 『개역한글』, 『개역개정』, 『표준』, 『새번역』, NIV, NRSUE, ESV, LB). 줄표를 사용한 역본은 NIV, NRSUE, LB이고, 나머지 6개 역본은 괄호를 사용했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본문 중 LB를 제외한 다른 역본이 줄표를 사용한 경우는 민수기 5:21이 유일하다.

**논의**: 괄호 본문은 담화의 흐름을 방해한다. 특히 21절의 괄호 본문은 앞

선 19절의 첫 부분과 거의 같다. 두 부분을 직역하면 아래와 같다.

> 19절: 그에게 제사장이 맹세하게 하여 그 여자에게 말할지니라
> 21절: 제사장이 그 여자에게 저주의 맹세로 맹세하게 하여 제사장이 그 여자에게 말할지니라

19절의 뒷부분과 20절, 22절에는 제사장이 여자에게 말해야 하는 저주의 내용이 나온다. 문장 부호를 쓰는『새번역』이나『새한글』은 이 부분을 따옴표로 묶었다. 그러나 21절의 괄호 본문은 제사장이 소리 내서 말해야 하는 내용이 아니다. 즉, 따옴표 밖에 있어야 하는 내용이다.

**평가와 제안**: 요컨대 괄호 본문에 해당하는 21절의 첫 부분이 제사장의 저주의 말을 중간에 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만약 괄호를 없앤다면 독자가 내용을 이해하기가 꽤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9개나 되는 역본이 괄호나 줄표를 썼을 것이다. 따라서 민수기 5:21의 괄호는 유지하는 것이 낫다.

### 3.5.2. 사무엘상 6:19

> 벧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오만) 칠십 명을 죽이신지라 …

**역본들의 괄호 사용**: 괄호나 줄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하는 12개 역본 중 3개 역본만 괄호를 썼다(『개역』,『개역한글』,『개역개정』).

**논의, 평가, 제안**: 이 본문의 괄호는 본문 비평과 관련된다. 이독(異讀)을 이렇게 괄호로 처리할 필요는 없다. 괄호를 없애고 난하주를 활용해서 이독을 나타내야 할 것이다.

### 3.5.3. 시편 9:16

>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여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힉가욘, 셀라)

**역본들의 괄호 사용**: 괄호나 줄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하는 12개 역본 중 7개 역본에서 '힉가욘, 셀라' 혹은 '셀라'를 괄호 속에 넣었다(『구역』,『개역』,『개역한글』,『개역개정』,『표준』,『새번역』, ERV). 다만 ERV는 소괄호가 아니라 대괄호를 사용했다.

**논의, 평가, 제안**: 시편에서 ‘셀라’ 같은 음악 용어를 괄호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번역 원칙을 정하고 그대로 따르면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원문을 따라 괄호를 안 쓰는 것이 낫다고 생각된다.

## 4. 나가며

『개역개정』의 25쌍의 괄호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관해 본 연구가 검토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3>『개역개정』 구약의 괄호 본문 검토 결과

| 범주 | 괄호 본문 | 필요성 | 유용성 | 괄호 유지 | 비고(괄호 본문의…) |
|---|---|---|---|---|---|
| **짧은 부연 (3개)** | 창 23:19 | × | ○ | 가능 | |
| | 창 48:7 | × | ○ | 가능 | |
| | 겔 41:16 | × | ○ | 가능 | |
| **긴 부연 (9개)** | 창 10:14 | ○ | ○ | 바람직 | 위치 조정 필요 |
| | 신 2:10-12 | ○ | ○ | 바람직 | |
| | 신 2:20-23 | ○ | ○ | 바람직 | |
| | 신 3:9 | ○ | ○ | 바람직 | |
| | 신 3:11 | ○ | ○ | 바람직 | 번역과 범위 조정 필요 |
| | 신 3:13-14 | ○ | ○ | 바람직 | 번역과 범위 조정 필요 |
| | 수 12:7-8 | ○ | ○ | 바람직 | |
| | 삼상 9:9 | ○ | ○ | 바람직 | |
| | 겔 20:29 | ○ | ○ | 바람직 | |
| **부대 상황 (4개)** | 신 10:6-9 | ○ | ○ | 바람직 | |
| | 삼상 30:5 | × | ○ | 가능 | |
| | 대하 9:10-11 | × | ○ | 가능 | |
| | 느 3:26 | ○ | ○ | 바람직 | |

| 범주 | 괄호 본문 | 필요성 | 유용성 | 괄호 유지 | 비고(괄호 본문의…) |
|---|---|---|---|---|---|
| 이유/근거 (6개) | 신 29:16-17 | × | ○ | 가능 | 번역 조정 필요 |
| | 대상 5:1-2 | × | ○ | 가능 | 번역 조정 필요 |
| | 에 1:13-14 | × | ○ | 가능 | 번역 조정 필요 |
| | 욥 8:9 | × | ○ | 가능 | 번역 조정 필요 |
| | 욥 27:3 | × | ○ | 가능 | 번역 조정 필요 |
| | 겔 45:14 | × | × | 지양 | 번역 조정 필요 |
| 기타 (3개) | 민 5:21 | ○ | ○ | 바람직 | |
| | 삼상 6:19 | × | × | 지양 | |
| | 시 9:16 | × | × | 지양 | |

앞서 말했듯 히브리어 원문에는 괄호에 해당하는 문장 부호가 없으므로 괄호가 필요한지 판단할 때는 가급적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 위 표에서 괄호가 유지가 가능함에도 필요성이 없다고 표기된 경우가 그런 경우이다.

범주별로 일반적인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짧은 부연의 경우는 괄호가 있는 것이 읽기에 유용하긴 하지만, 삽입 자체가 짧으므로 괄호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둘째, 긴 부연의 경우는 서술의 줄기를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끊어 놓는 특성이 있는데, 괄호 덕분에 서술의 줄기를 되잡는 것이 쉬워진다. 삽입이 길다는 성질 때문에 괄호 유지의 필요성은 높아진다. 셋째, 부대 상황의 경우는 괄호를 유지하는 쪽이 좋을 때도 있고 삭제하는 쪽이 좋을 때도 있다. 신명기 10:6-9의 경우는 본문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어서 괄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느헤미야 3:26의 경우는 그 내용이 이질적이어서 괄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유나 근거의 경우는 서사의 줄기를 보충해 주는 내용이 많으므로 괄호로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모든 사례에서 כִּי를 명시적으로 번역하는 수정이 필요함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례 중 사무엘상 6:19와 시편 9:16은 괄호를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라기보다는 번역 원칙을 세우는 일과 관련된다.

본 연구는 괄호의 유용성과 필요성을 둘러싼 판단을 범주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성서 번역에서 종종 직관에 맡겨지던 문제를 보다 명시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끌어올리고자 했다. 이는 향후 개별 본문 번역과 번역 원칙 논의에서 참고점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Keywords)
괄호 본문,『개역개정』, 부연 설명, 부대 상황, 이유 혹은 근거.
Parenthetical passages, NKRV, Explanatory additions, Concurrent Situations, Reason or rationale.

(투고 일자: 2026년 1월 31일, 심사 일자: 2026년 2월 27일, 게재 확정 일자: 2026년 2월 27일)

<참고문헌>(References)

김정우 편,『성경원어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문법용어 사전』, 서울: 기혼, 2025.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대한성서공회사 II: 번역·반포와 권서사업』,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조재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신약에서 괄호의 필요성과 유용성 검토 — 역주, 방백, 근거 제시의 기능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57 (2025), 111-141.

홍국평, "창세기 27장의 장면전환 기법 분석을 통한 '베-X-카탈' 구문의 기능에 관한 연구",「신학논단」75 (2014), 379-407.

Aejmelaeus, A., "Function and Interpretation of כי in Biblical Hebrew", *JBL* 105 (1986), 193-209.

Cross, F. M., and Talmon, S., eds., *Qumran and the History of the Bible Tex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5.

Farber, Z., "The Resumptive Repetition (Wiederaufnahme)", *The Torah*, accessed 26 January 2026 from https://www.thetorah.com/article/the-resumptive-repetition-wiederaufnahme.

Ginsburg, C. D., עשרים וארבעה ספרי הקדש [*The Twenty-four Holy Books*], 2 vols., London: Trinitarian Bible Society, 1894.

Greenberg, M., *Ezekiel 1-20: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22, Garden City: Doubleday, 1983.

Klein, R. W., *1 Chronicles: A Commentary*,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2006.

Long, B. O., "Framing Repetitions in Biblical Historiography", *JBL* 106 (1987), 385-399.

Nestle, E., *Novum Testamentum Graece cum apparatu critico ex editionibus et libris manu scriptis collecto. Editio duodecima recognita*, Stuttgart: Privilegierte Württembergische Bibelanstalt, 1923.

Talmon, S., "The Textual Study of the Bible: A New Outlook", *Text and Canon of the Hebrew Bible: Collected Studies*, Winona Lake: Eisenbrauns, 2010, 19-84.

Tigay, J. H., *Deuteronomy: The Traditional Hebrew Text with the New JPS Translation*,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6.

<Abstract>

**An Examination of Parenthetical Phrases in the Old Testament of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Dong-Hyuk Kim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unction, utility, and necessity of parenthetical markers within the Old Testament of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NKRV, 『개역개정』, 1998). While the original Hebrew text does not employ parentheses, the NKRV contains ninety-eight parenthetical pairs in its Old Testament section. Excluding seventy-three instances that enclose the musical term “Selah” in Psalms and Habakkuk, the research concentrates on the remaining twenty-five parenthetical passages, which range from single-word glosses to units spanning four verses. The primary objective is to evaluate these markings by analyzing their immediate literary and syntactic contexts,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heir continued use is justified in any future revision.

Building upon earlier scholarship concerning parentheses in the NKRV New Testament, this research categorizes the twenty-five Old Testament passages into five functional groups: short explanatory additions, extended explanatory additions, concurrent situations, reasons or rationales, and miscellaneous cases. A central methodological feature of this study is its reliance on formal and syntactic criteria found in Biblical Hebrew discourse analysis—such as anaphoric structures, specific verbal sequences like *waw*-X-*qatal*, and the use of the conjunction *kî*—rather than relying on interpretive content. This includes examining literary techniques like Wiederaufnahme (resumptive repetition), which serves as an ancient equivalent to parentheses. Furthermore, the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across fifteen different translations, including early and modern Korean versions (『구역』, 『개역』, 『개역한글』, 『공동』, 『공동개정』, 『표준』, 『새번역』, and 『새한글』, in addition to 『개역개정』), as well as representative English and German translations such as the KJV, ERV, NIV, NRSUE, ESV, and LB.

The results show that parentheses often facilitate readability by distinguishing supplementary or editorial material from the main narrative flow. Nevertheless,

it is emphasized that parentheses should be used conservatively in translation. The study argues that while parenthesis extended explanatory additions effectively manage shifts in the narrator's voice and warrant retention, ones for shorter additions are often unnecessary if the text can be integrated smoothly. For concurrent situations, parentheses should be retained only for lengthy or heterogeneous content. For passages providing rationale, the study suggests that explicitly translating Hebrew conjunctions like *kî* (e.g., "[This is] because...") can often remove the need for parentheses. Ultimately, by moving beyond intuition to systematic linguistic criteria, this research provides a framework for refining translation principles in future editions of the Korean Bible.

<부록 1>『개역개정』의 괄호 본문은 다른 역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 본문 | 구역 (1911) | 공동 (1977) | 공동 개정 (1999) | 표준 (1993) | 새번역 (2001) | 새한글 (2024) | KJV (1611) | ERV (1885) | NIV (2011) | NRS UE (2021) | ESV (2025) | LB (2017) |
|---|---|---|---|---|---|---|---|---|---|---|---|---|
| 창 10:14 | | | | | | | 괄호 | 괄호 | 괄호 | | 괄호 | |
| 창 23:19 | | | | | | | | 괄호 | 괄호 | | 괄호 | |
| 창 48:7 | | | | | | | | 괄호 | 괄호 | | 괄호 | |
| 민 5:21 | | | | 괄호 | 괄호 | | | | 줄표 | 줄표 | 괄호 | 줄표 |
| 신 2:10-12 | 괄호 | | | 괄호 | 괄호 | | | 괄호 | 괄호 | 괄호 | 괄호 | 줄표 |
| 신 2:20-23 | 괄호 | | | 괄호 | 괄호 | | 괄호 | 괄호 | 괄호 | 괄호 | 괄호 | 줄표 |
| 신 3:9 | 괄호 | | | 괄호 | 괄호 | | 괄호 | 괄호 | 괄호 | 괄호 | 괄호 | 줄표 |
| 신 3:11 | 괄호 | | | 괄호 | 괄호 | | | 괄호 | 괄호 | 괄호 | 괄호 | |
| 신 3:13-14 | 괄호 | | | 괄호 | 괄호 | | | 괄호 | 괄호 | 괄호 | 괄호 | |
| 신 10:6-9 | 괄호 | | | 괄호 | 괄호 | | | 괄호 | 괄호 | 괄호 | 괄호 | |
| 신 29:16-17 | | | | 괄호 | 괄호 | | 괄호 | 괄호 | | | | |
| 수 12:7-8 | | | | | | | | | | 괄호 | 괄호 | |
| 삼상 6:19 | | | | | | | | | | | | |
| 삼상 9:9 | | | | 괄호 | 괄호 | | 괄호 | 괄호 | 괄호 | 괄호 | 괄호 | 줄표 |
| 삼상 30:5 | | | | | | | | | | | | |
| 대상 5:1-2 | | | | 괄호 | 괄호 | | 괄호 | 괄호 | 괄호 | 괄호 | 괄호 | 줄표 |
| 대하 9:10-11 | | | | 괄호 | 괄호 | | | | 괄호 | | | |
| 느 3:26 | | | | | | | | 괄호 | | | | |
| 에 1:13-14 | | | | | | | 괄호 | 괄호 | | 괄호 | 괄호 | 줄표 |
| 욥 8:9 | | | | | | | 괄호 | 괄호 | | | | |
| 욥 27:3 | | | | | | | | 괄호 | | | | 줄표 |
| 시 9:16 | 괄호 | | | 괄호 | 괄호 | | | 대괄호 | | | | |
| 겔 20:29 | | | | 괄호 | 괄호 | | | | 괄호 | 괄호 | 괄호 | |
| 겔 41:16 | | | | | | | | | | 괄호 | 괄호 | 줄표 |
| 겔 45:14 | | | | | | | | | 괄호 | 괄호 | 괄호 | |